

너를

85

2019 하반기

유 한국성폭력상담소

4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 4 열림터 25주년 포럼과 후원의 밤 후기
- 9 첫 번째 텀블벅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자료집을 전국으로, 성공적!
- 12 다시 서는 무대가 멀게만 보여 잠시 쉬어가는 후기
- 18 〈보통의 연대〉 성폭력과 나의 거리는 0m였다
- 24 〈피해와 생계 사이〉 연속집담회 다섯 번의 기록
- 26 2019 페미사국광장 퍼포먼스 모아보기

28 원대!상담소

30 2019 상담통계

34 생존자의 목소리

- 34 내가 나로 살아가는 동안에
- 37 반도 안왔다는 말은 이제 그만
- 40 이 세상의 별빛이 될 모두에게
- 44 나는 오늘도 출근을 한다
- 47 [광고]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48 성문화읽기

- 48 #2020여성출마프로젝트_국회의 절반이 여성이라면

50 시끌시끌 상담소

- 50 꿈같은 6개월 육아휴직을 마치면서
- 56 합정동 '맛집', KSVRC 런치타임을 소개합니다

60 아낌없이 주는 나무

63 훈훈한 기부

열림터 25주년 기념 포럼과 후원의 밤 후기

수수_열림터 활동가

편집자 주
이 글은
부설 심터 열림터 블로그
(<https://yeolim.tistory.com/145>)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_ 열림터 25주년 기념 포럼 <보호의 쉼터에서 삶의 기반을 만드는 공간으로> 전경

9

지난 10월 30일, 열림터는

그 동안의 역사와 고민을 녹여내어 25주년 기념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LG컨벤션홀에서 진행한 이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외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열림터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서

상당소 및 열림터 후원회원 분들과도 나누고자 합니다.

보호의 쉼터에서 삶의 기반을 만드는 공간으로

이날 1부 순서로 열림터 25주년 기념포럼 <보호의 쉼터에서 삶의 기반을 만드는 공간으로>는 오후3시부터 6시까지 이미경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발제자인 열림터 원장 사자 활동가는 “모든 성폭력피해여성에게 열린 집을 열다- 열림터 25년의 역사와 현재”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25년간 열림터 생활인의 구성과 주요활동을 소개했어요. 발표 자료에는 옛날 열림터 사진들도 많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열림터가 국가 제도 시스템으로 편입되

는 과정에서 마주했던 고민(주로 생활인 정보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주였습니다)과, 그에 대한 대응 내용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시설에서 생활하는 성폭력피해 생존자 지원을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리고 열림터 운영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전망했습니다.

저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 개념을 재사유하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사회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라는 명목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열림터 활동도 ‘생활인 보호’라는 이름 속에서 여러 고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그동안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현장에서 성폭력피해생존자 보호 업무를 할 때 활동가와 생활인이 느끼게 되는 딜레마를 정리했습니다. 가령 생활규칙은 생활인과 활동가들이 항상 첨예하게 논쟁하는 지점입니다. 열림터에는 공동 생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그리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규칙이 있습니다. 휴대폰 규제, 귀가시간, 외박 횟수, 프로그램 참여를 망라하는 이 규칙은 ‘보호’를 위한 장치이지만, 이 ‘보호’가 ‘시설에서의 이탈 방지’나 ‘시설 운영에 문제를 야기하는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가 맞는지 부단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림터의 지원이 가져야 하는 여성주의 관점이란 무엇인지 나누며 앞으로 쉼터 형태의 성폭력피해생존자 지원이 어떻게 변화되면 좋을지 상상해보았습니다.

백목련 활동가는 “열림터 퇴소자 지원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색”이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정상가족’ 중심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자원 없이 시설에 입소하게 된 열림터 생활인들에 대한 고민에서 우리나라 글이었습니다. 생활인들이 퇴소 후에도 ‘가족’의 역할을 하는 정서적 지지 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올해 격월로 진행하고 있는 퇴소자 모임인 ‘또우리’(또 만나요 우리)에 대한 내용도 들려주었습니다. 퇴소 후에도 연속적 지원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_ LG컨벤션을 로비에 마련된 포토월

그 외에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모퉁잇돌> 송은주 원장님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지원네트워크와 그 필요”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인권교육센터 들> 몽실탐의 난다 활동가가 ““홀로서기”가 아니라 ‘의존하며 함께 살기’를 바란다”는 제목으로 대안적인 자립 개념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어주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는 바로 열림터 25주년 후원의 밤 <우리들의 집을 찾아서>가 이어졌습니다. 맛있는 저녁과 함께 생활인, 활동가, 후원자가 함께하는 무대가 황금명륜, 오매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후원의 밤에 참여한 후원인 여러분들이 생활인, 활동가, 후원자의 입장에 직접 서서 30년 뒤의 열림터를 상상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성폭력이 사라져서 열림터가 문을 닫아!”, “열림터 포우리들이 경제 공동체를 꾸려!”, “생활인에게 자기만의 방과 공유 공간을!”이라는 세 문구가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박자가 한없이 빨라지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의 “이 얼음같은 세상을 깨고” 합창으로 후원의 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박자가 빨라진 데에는 활동가들의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비밀이 있는데요. 무대에 너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활동가들을 보다 못한 생활인 중 한 명이 무대 맞은편에서 즉흥 지휘를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즉흥 지휘는.. 한없이 빨랐고.. 활동가들은 생활인의 지휘에 맞춰... 한없이 빠른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 무대가 모두 끝나고 나서 지휘를 했던 생활인은 자신의 영향력이 이렇게 굉장했다는 것에 매우 뿌듯해했습니다. 🙋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포럼 자료집 PDF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텀블벅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자료집을 전국으로, 성공적!

닷별_텀블벅 마스터

9
상담소에서 새로운 굿즈 제작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마도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후원회원 담당으로서 매달 상담소 정기후원을 시작하는 분께 후원 감사 편지와 상담소 소식지, 상담소에서 만든 다양한 굿즈들을 챙기면서 호시탐탐 새로운 굿즈 제작에 눈독 들이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페미굿즈가 나왔다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제버튼부터 누르는 제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첫 번째 텀블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텀블벅이라는 뉴-플랫폼과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건의 전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2018년 성문화운동팀에서 <의심에서 지지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아주 야심차게 만든 자료집이 있습니다. 바로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자료집입니다. 미투운동이 한창이었던 2018년, 거리 캠페인을 통해 모은 스무 개의 질문을 통념과 해결 파트로 나누고, 각각의 질문에 상담소 활동가들이 답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성폭력 개념과 기준에 대한 질문 두 개를 추가해 총 22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담았습니다. (여담이지만, 내용이 정말 좋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성폭력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서입니다.)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텀블벅 프로젝트는 바로 이 자료집을 더욱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배포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_ 첫 번째 텀블벅 프로젝트의 메인 이미지

선례를 만드는 일을 한다는 점이 어려웠습니다. 첫 시도인 만큼 예쁘고 많이 쓰이는 굿즈, 상담소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수도 없이 많은 텀블벅 진행 후기를 찾아다니고, 텀블벅이라는 플랫폼을 애용하는 후원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하는지 고민을 더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주문제작하는 사이트도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심지어는 아이돌 팬덤 내에서 유행하는 주문제작 물품이 무엇인지까지 눈이 빠지게 찾아보았답니다.

그렇게 정한 굿즈가 스티커와 엽서, 금속 키링과 후드티였습니다. ‘키링’이라는 말을 듣고 투박한 열쇠고리를 떠올렸던 활동가들의 의구심 섞인 표정이 기억납니다. “그게 요즘 트렌드냐”, “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등 참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붐이 불면서 이어폰 케이스에 달 수 있는 장식이 유행 중이라는 만고의 설득 끝에, 결국에는 저의 감각을 믿는다며 통과되었습니다. 지금은 상담소 로고를 사랑하는 활동가들이 가장 만족하는 굿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표 금액만 간신히 채우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50만 원이라는 목표치가 엄청 멀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텀블벅 오픈 당일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오픈 하루 만에 목표 금액의 40%를 넘기고, 12일 만에 100%를 달성했습니다. 500만 원을 돌파했을 때에는 너무 놀라서 사무실에서 호들갑을 떨기도 했습니다. 기대도 하지 못했던 목표를 이루게 해주신 274분의 후원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통의 연대> 주변인 인터뷰 캠페인에서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 <성폭력 주변인 체크리스트>를 리워드로 제작하여 함께 발송하였습니다. 자료집을 읽어보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성폭력 주변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조금 더 다양한 상상을 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_ 텀블벅 성공 후, 활동가들이 모여 리워드 발송 작업 중

한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맡아본 경험은 처음이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처음 해 보는 일도 많았고, 무언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무겁기도 했던 시간을 지나 벌써 텀블벅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해매고 있을 때마다 많은 동료 활동가들이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어 주어서 무사히 텀블벅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산처럼 쌓인 리워드를 포장할 때에도, 우체국에 리워드를 부치러 갈 때에도 혼자였다면 참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 자료집에 관심 가져 주시고 널리 홍보해 주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자료집 배포 대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밀어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이 자료집을 꼭 읽어야 하는 대상인 검찰/경찰/법원/교육청의 성폭력 관련 부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리스트 공개 및 발송 작업은 곧 공지될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바라는 정의가 실현되는 그 날까지, 상담소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

다시 서는 무대가 멀게만 보여 잠시 쉬어가는 후기

이산_마임배우,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_ 연극연출가 이운택 성폭력 사건 항소심 기자회견 <“오랜 관행”이 아니다 성폭력이다>

9

2019년 7월, 대법원은

전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운택의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징역 7년에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2018년 2월 피해생존자들의 미투운동이 일어난 후 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이운택 성폭력사건 대응의 의의와 쟁점
<분노가 지나간 자리, 다시 무대에 서다>가 열렸습니다.

공동변호인단의 서해진, 장경아, 이명숙 변호인,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을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소장, 공동 고소인단 중 김수희, 이재령 고소인,

그리고 글쓴이가 본 사건 대응과 공대위 활동에 대해 발제했고,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의 김영옥 대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장임다혜 연구원이
각각 문화와 법을 연구하는 학자의 관점으로 토론하였습니다.

본 토론회장의 발제와 토론내용은 상담소 블로그에 실린 후기로, 언론보도로,
PDF 파일로 게시된 자료집으로도 남아있으니 충분히 다른 경로로 전해지리라 생
각하여, 그 자리에서 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로 후기를 대신해보고자 합니다.

토론회 홍보물을 만들기 전, 토론회 제목을 정하기 위한 몇 개의 후보가 있었습
니다. 여차저차 하여 최종 제목이 정해졌지만, 저는 그 제목이 참 아득하게만 느
껴졌습니다. 분노는 언제 지나갔고 누가 다시 무대에 서고 있는 것인지, 얼핏 보면
희망을 말하는 것만 같은 이 문장이 저에게는 참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2018년
2월 연극하는 사람들을 폭풍처럼 휩쓸었던 분노와 충격이 점차 가라앉아 가고,
여성예술인들의 더 멋지고 거침없는 작업들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
허함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스스로 더듬어 나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윤택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극단 연희단거리패는 수백여 명의 연극인들의 작업과 생계와 관계망의 장이었습니다. 2018년 2월, 연희단거리패에서 활동하던 연극인들은 성폭력과 위계폭력과 부당한 착취에서 벗어난 동시에, 함께 대본을 읽고 연습실에서 몸을 풀고 무대에 서는 감각을 익히며 보람과 고단함을 나누던 동료와 헤어졌습니다.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는 위계와 위력이 있는 곳이라면 성폭력 역시 만연합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반성하기에 앞서 ‘문란한 연극계’라는 비난을 던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극의 연출이나 예술감독, 제작자가 여성배우와 스태프를 강간과 추행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단기적인 계획을 남발했고, 언론은 안마를 빌미로 피해자의 손을 성기로 잡아끈 성추행을 ‘성기 안마’ 따위의 성립되지 않는 말로 포장하여 스캔들인 양 다루었습니다.

인터뷰로, 자문으로 ‘연극계 특수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찾아 헤매는 정부와 언론을 보며 묻고 싶었습니다. 종교계에, 학계에, 의료계에, 정계에, 군 내, 사회복지시설 내에는 이러한 유형과 규모의 성폭력 사건이 없었나요? ‘정계 특수성’, ‘종교계 특수성’은 찾지 않던 이들이 왜 갑자기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찾고, 이 특수성을 왜 자꾸 피해생존자와 여성들에게 물을까요? 가해자가 국내 최대 규모의 극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던 시스템을 추적해보면 권력이 축적된 경로가 눈에 뻗히 보일 텐데 말입니다. 이윤택은 심지어 자신의 여성혐오를 전혀 숨기지 않고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가론 저서에서 고전극의 내용을 예로 들면서 ‘자기 부인을 손님에 바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여유 있는 인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고, 인터뷰 대답집에는 추모 미사에 참석했다가 참석한 여성들이 입은 치마저고리를 보고 섹스가 하고 싶어 성구매 업소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출판

* [영혼과 물질-이윤택연가론], 이윤택 저, 도요, 2011

** [난세를 가로질러 가다-이윤택 연극작업 대답집], 김남석 편저, 연극과인간, 2006



_ <이윤택 성폭력사건 대응의 의의와 쟁점 분노가 지나간 자리, 다시 무대에 서다>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들

된 저작물에서 이런 표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면 연습실에서, 회의실에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차고 넘치지 않았을까요.

이윤택의 성폭력에 대한 제보나 신고를 받고도 묵인했던 언론과 경찰, 이윤택의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고 들었음에도 각종 공공지원금과 지원금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직함을 주었던 지자체와 정부 부처 그 어느 곳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극단이 사라지면서 동료와 부대끼 기회를, 무대에 설 기회를 잃어버린 연극인들은 이윤택이 저지른 성폭력에 대한 비난까지 떠안아야 했

습니다. 연희단거리패 단원이라는 이유로 수업이나 공연에서 배제되어 생계를 잃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복사하고 붙여가며 기사는 쌓여갔지만, 미투운동으로 게시된 글 내용과 공동대책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외에는 심층 취재한 기사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연희단거리패에 몸담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운택 성폭력 사건이 흥밋거리나 책임회피용 과제로만 다뤄지는 사회의 냉혹함을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종종 맞이합니다.

어째서 연희단거리패가 해체된 것은 '미투 때문'이 아니라 이운택의 성폭력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리도 적을까요. 그가 한국의 연극을 대표하는 거장으로 활동해온 경로와 단원들을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착취해 온 경로는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들은 거장으로 활동해온 것을 성폭력에 대한 면죄부로 여길까요. 연희단거리패를 거쳐 온 연극인들이 폭력 피해를 견디고도 애써 작업에 참여한 인내심과 용기는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까요? 왜 침묵으로 피해를 방조했다는 자책감은, 소리를 질렀다 해도 극단에서 쫓겨날 뿐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을 사람들만 떠안고 있을까요. 저는 이운택 성폭력 사건이 언론과 정부 부처에게 소비의 대상이었을 뿐, 연희단거리패에 머물렀던 수 백여 명의 연극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중 그 무엇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생계나 작업의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 또는 그 기회를 포기하고 난 이후에 성폭력을 문제제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전까지 성폭력이 참을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속해있던 당시에는 성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협상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운택의 성폭력을 미투로 알렸던 예술인들은 다른 곳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배우이거나 자신의 극단을 꾸려가고 있는 연출가였다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해 이들은 자신의 무대를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고소인단이 폭로라는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훨씬 더 빨리 중단시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소인단은 지난 2년 동안 성폭력을 멈추기 위해 이운택을 고소하고, 성폭력을 용인했던 구조를 바꾸어나가기 위한 질문에 끊임없이 답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가 피해생존자에게 묻기 전에, 스스로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희 님의 토론회 발제문 중 '질문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만나는 하루가 하루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장을 기억합니다. 이재령 님은 토론회장에서 밝은 미소와 목 메이는 떨림이 교차하는 노래로 청중을 위로하였습니다. 그 위로의 힘이 실질적인 노력과 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 모든 고소인들에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포럼 자료집 PDF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연대〉

성폭력과 나의 거리는 0m였다

서다희_의심에서지지로 캠페인단

9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은 올해 상반기에 캠페인단 교육을 받고,
하반기에 성폭력 주변인의 경험을 듣는 ‘보통의 연대’ 인터뷰어로 활동했습니다.
11월에는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며
참여자들과 서로 이야기 나누는 워크숍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캠페인단으로 활동하셨던 다희 님의 인터뷰입니다.

🙋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회교육과에 재학 중인, 페미니스트 교사를 꿈꾸는 서다희라고 합니다.

🙋 캠페인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트위터에서 본 홍보 게시물 중 “의심에서 지지로”라는 슬로건에 마음을 빼앗겨서입니다. 그 당시 성폭력 피해생



_ 보통의 연대 워크숍 〈나와 성폭력 사이의 거리는 몇 M일까?〉

존자에 대한 저의 생각이 ‘의심에서 지지로’ 변화하는 중에 있어서 그 슬로건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또 캠페인단 교육 중에 여성주의 상담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만날 때 여성주의 상담에 대해 알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참여했습니다.

🙋 인터뷰어로서의 경험을 나누어주시겠어요?

저는 총 3번의 인터뷰를 했고 그중 2개의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처음 친구와 인터뷰를 할 때는 긴장해서 많은 추가 질문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성폭력과 관련된 경험이 친구로부터 술술 나왔다는 사실에 기분이 묘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저의 할머니, 달빛노을 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놀랐던 부분은 직장 내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의 피해생존자가 처했을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하고 계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 “여자는 잘 익은 사과 같다.”라는 말을 듣거나 만연한 직장 내 ‘성접대’에 대해 알고 계시는 등 달빛노을 님이 살아오신 시대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남성은 원래 나쁘고

성폭력은 여성이 조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전과 후에 성폭력과 자신의 거리를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달빛노을 님은 두 번 다 멀다고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주변인이 할 수 있는 일로 ‘피해를 경험한 여성을 이상하게 보지 말고 경청하고 위로, 격려해주고 앞으로의 세상은 여성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적어주신 부분에서 ‘의심에서 지지로’ 한발 더 나아가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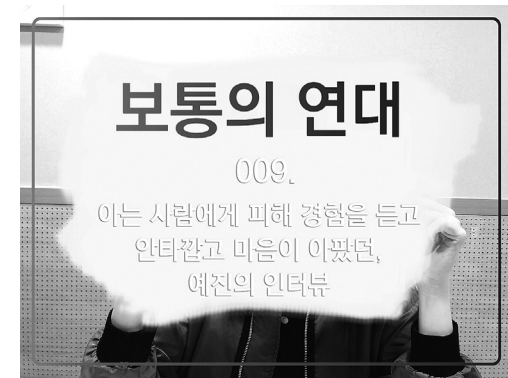
보통의 연대 인터뷰가 아니었다면 듣지 못했을 경험들과 생각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경험과 생각들을 언어화하는 것이 인터뷰이 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자각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경험을 자주 이야기하고 함께 나눈다면 모든 성폭력 주변인들이 방관자가 아닌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 보통의 연대 워크숍 〈나와 성폭력 사이의 거리는 몇 M일까?〉 어땠어요?

캠페인단 활동의 마지막, 워크숍은 2부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에는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 활동보고와 캠페인단 두 분의 소감, 인터뷰 참여자 두 분의 소감을 들었습니다. 2부에는 캠페인단이 함께 구성한 보드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성폭력 주변인과 관련된 여러 문장이 칸마다 적혀 있었고 주사위를 굴려서 해당하는 칸에 적힌 주제로 조별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조는 총 4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첫 번째 주제: 성폭력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참여자분 말씀에 정말 공감 많이 갔습니다. 지인에게 위치를 공유해주는 안심이 어플, 서울 지하철에서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어플 등 “꿀팁”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그런 “꿀팁”이 있다는 사실이 슬프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_ 매주 목요일마다 블로그에 업데이트되는 [보통의 연대] 인터뷰 이미지

– 두 번째 주제: 사람들은 성폭력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관심이 많은 사람, 아예 없는 사람으로 양분화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이 나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특정 가해자 개인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가 가능하고 수용되는 사회구조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 세 번째 주제: 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____ 이다.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 분리 등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고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신 주변인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든)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은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 맞서 피해생존자를 지지하는 의미로 나왔습니다. 또 “행복해도 된다.”라는 말과 “오랫동안 힘들어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함께 나왔습니다. 행복해도 된다는 말이 힘들어하는 사람에겐 위선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 네 번째 주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 어디까지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도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서명 운동을 하거나 시위에 참여하거나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후원(!)하는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별 워크숍을 참여하면서 이런 공간에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인, 성폭력 주변인으로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위 주제 말고도 워크시트에는 성폭력 주변인에 관해 생각해보아야 할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워크시트를 활용해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성폭력과 다희님의 거리는 몇M인가요?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에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인지한 저와 성폭력의 거리는 매우 멀었습니다. 성폭력은 기사에서나 볼 수 있는 남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캠페인 활동을 통해 성폭력에 대해 듣고 말하고 생각해보면서 저와 성폭력 사이의 거리는 0m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초인종이 울리면 숨죽이는 모습,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치한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던 경험, 밤길에 갑자기 흠칫해서 달려서 집에 갔던 경험은 깨닫지 못했을 뿐, 지금까지 저의 삶이 성폭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성폭력에 대해 인지하며 살지는 않지만,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로 성폭력과 무관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캠페인단 하시면서 느꼈던 점을 나눠주세요.

성폭력이라는 주제는 페미니스트로서도 쉽게 꺼내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연대 캠페인에 참여하고 성폭력 주변인이라는 주제로 주위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도 몰랐던 성폭력에 대한 저의 생각, 경험들을 입 밖으로 꺼내보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고쳐본 경험이 뜻깊고 좋았습니다.

보통의 연대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얻는 것은 성폭력이라는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곳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꺼내기 어려운 예민한 주제일 수 있지만, 모두와 관련 있고 꼭 함께 이야기하고 바뀌나가야 할 주제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저에게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돕는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진행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캠페인단 분들과 앞 활동가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피해와 생계 사이> 연속집담회 다섯 번의 기록

신아_피해와 생계 사이 담당자

9

<피해와 생계 사이, 성폭력을 말한다>는

성폭력 피해자가 직면한 '생계'와 '생존'의 문제와 성폭력 권력구조를 드러내는
연속집담회입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5회에 걸쳐 총 열일곱 번의 생존자 혹은 활동가들이 출연해 이야기 나누며,

또 다른 성폭력 말하기의 장이 되었습니다.

집담회 현장을 생생하게 스케치한 기사와 집담회의 취지와 의미를

정리한 시작과 마무리 기사를 갈무리하여 전합니다.

연속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

내 땅의 여성 노동자와 더불어
직장 내 성인화 및 구조를 부수는 참여형 토론회

**1회차 노동은 비정규,
성희롱은 정규?**



| 일시 |
2019년 5월 9일 저녁 7시~9시30분

| 장소 |
오네긴하우스
(서울 마포구 망원로 4길 24, 2층)

주최 유한성폭력상담소
후원 여성가족부

연속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

**2회차 지도받을 권리,
지배받지 않을 권리**



성평등한 교육환경 향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참여형 토론회

| 일시 |
2019년 6월 20일 저녁 7시

|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타종 이안젤라울



주최 유한성폭력상담소
후원 여성가족부

연속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

**3회차 성폭력,
말할 수 있을까?**



피별·형조·낙인으로 비가시화되는 성폭력,
장미로써 화제를 모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참여형 토론회

| 일시 |
2019년 8월 8일 저녁 7시

|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타종 이안젤라울



주최 유한성폭력상담소
후원 여성가족부

연속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

**4회차 성폭력과
싸우는 데
내가 들인 비용**



성폭력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부리는 "그 시간"을 드러내고 사회와
역량을 질문하는 참여형 토론회

| 일시 |
2019년 9월 19일 저녁 7시

|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타종 이안젤라울

주최 유한성폭력상담소
후원 여성가족부

연속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

**5회차
성폭력 이후,
나의 일상 찾기**



성폭력 생존자가 만들어 가는 회복과
치유의 과정에 대한 참여형 토론회

| 일시 |
2019년 10월 25일 저녁 7시

|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타종 이안젤라울

주최 유한성폭력상담소
후원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은 그냥 회복되지 않는다

_ <피해와 생계 사이> 연속 집담회를 시작하며

연속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의 기획 의도와 함께 집담회의
시작을 알리는 기사



'생계 걱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해야죠'

_ <피해와 생계 사이>① "노동은 비정규, 성희롱은 정규?"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 형태가 만들어내는 일터 내 권력 관계와
성폭력 구조를 알아보는 집담회



'지도'를 받고 '지배'는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

_ <피해와 생계 사이>② 스포츠, 연극계, 교육 현장의 '미투' 이후

스포츠계, 극단, 학교 등 노동의 영역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위계
적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교육훈련과정에서의 성폭력을 다룬 집
담회



성폭력을 겪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_ <피해와 생계 사이>③ 보호받기는커녕 비난받는 소수자들

성매매 여성, 이주 여성, 트랜스젠더, 미투운동으로도 가시화되
지 않는 소수자들의 성폭력 경험에 대한 집담회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

_ <피해와 생계 사이>④ 성폭력과 싸우는 데 내가 들인 비용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로 인해 빼앗기거나 잃은 것부터, 사건을
해결하고 생존을 위해 들이는 모든 경제적 비경제적 노력에 대한
집담회



'평생의 고통'도 '완전한 치유'도 없다

- <피해와 생계 사이>⑤ 성폭력 이후, 나의 일상 찾기

중요한 것은 잘 살아가는 것.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과 회복에 대
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집담회





1
1차(7/12)
〈조선일보 사옥 메시지 전사〉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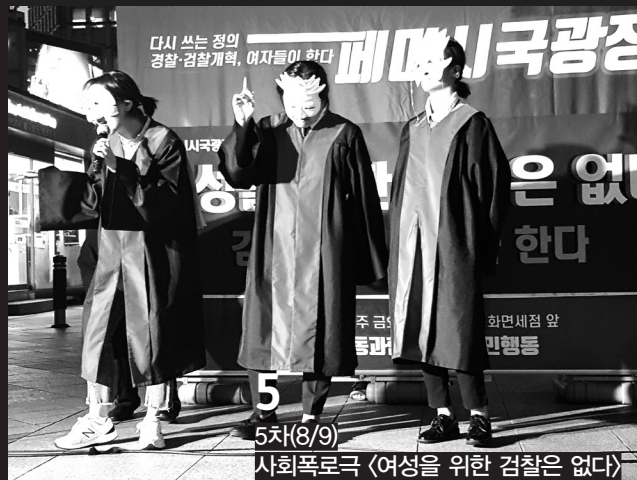


4
4차(8/2)
〈양진호에 13640년 선고〉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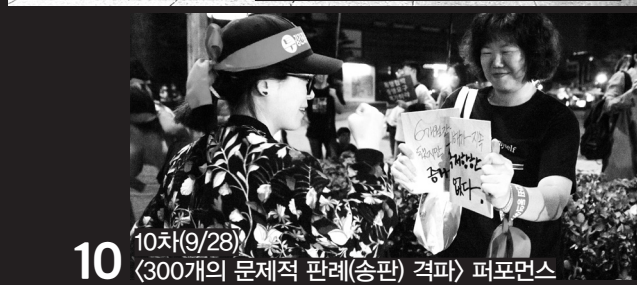


2
2차(7/19)
〈성평등 세상으로의 길잡이〉 퍼포먼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미투시민행동)은 2019년 7월 12일부터 9월 28일까지 열 차례에 걸쳐 페미시국광장을 개최하였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윤종천 사건, 버닝썬 사건 등 제대로 된 수사나 기소,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검·경개혁 여자들이 한다"는 큰 주제 아래 회차마다 각기 다른 주제와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본 상담소는 5차 본 집회와 10차 행진을 주관하였습니다.



5
5차(8/9)
사회폭로극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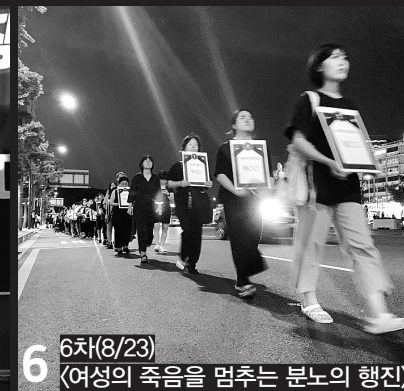


10
10차(9/28)
〈300개의 문제적 판례(송판) 격파〉 퍼포먼스



3
3차(7/26)
〈김학의는 어디에나 있다〉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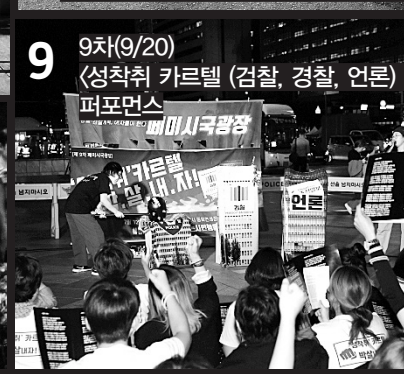
2019 페미시국광장 퍼포먼스 모아보기



6
6차(8/23)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



7
7차(8/30)
〈개떡 같은 불기소 이유서 절구에 넣어 뺑기〉 퍼포먼스



9
9차(9/20)
〈성착취 카르텔 (검찰, 경찰, 언론) 격파〉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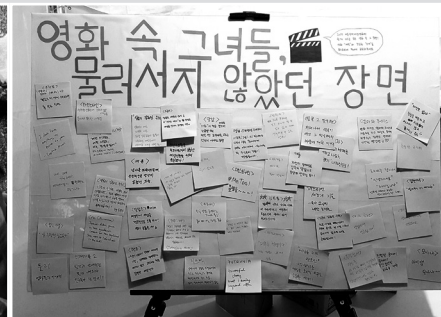


8
8차(9/6)
〈모리바야사〉 플래시몹

7월 7/5 NGO 활동의 평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7/8-30 30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7/12 [페미시국광장] 1차 <쉬위는 당겨졌다. 시작은 조선일보>
7/19 [페미시국광장] 2차 <버닝썬 핵심은 강간문화카르텔이다. 공포세력 검경을 갈아엎자>
7/26 [페미시국광장] 3차 <김학의 사건, 본질은 성폭력이다. 검찰이 주범이다>

8월 8/2 [페미시국광장] 4차 <웹하드카르텔, 양진호는 아직도 처벌받지 않았다>
8/8 [연속집담회] 피해와 생계사이 3회 <성폭력, 말할 수 있을까?>
8/9 [페미시국광장] 5차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개혁 우리가 한다>
8/13 [화원놀이터] 청년여성: 단편 영화 공동체 상영과 이야기 나눔
8/28 [페미시국광장] 6차 <검-경 개혁 여자들이 한다!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
8/30 [페미시국광장] 7차 <국산아동' 유통 사이트 처벌하라>
8/31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마켓 F <페미답게, 적극적 합의> 부스 운영

9월 9/6 [페미시국광장] 8차 <일상의 남성 카르텔 우리가 부순다>
9/9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성폭력사건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제는 끝내자>
9/18 강간죄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하라>
9/19 [연속집담회] 피해와 생계사이 4회 <성폭력과 싸우는데 내가 들인 비용>
9/20 [페미시국광장] 9차 <성착취'카르텔을 박살내자>
9/27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9/28 [페미시국광장] 10차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10월 10/19 차별금지법제정촉구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
10/25 [연속집담회] 피해와 생계사이 5회 <성폭력 이후 나의 일상 찾기>
10/30 [열린터 25주년] 포럼 <보호의 섬터에서 삶의 기반을 만드는 공간으로> & 후원의 밤 <우리들의 집을 찾아서>

11월 11/4 [토론회]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11/12 [워크숍] 보통의 연대 활동보고회 <나와 성폭력 사이의 거리는 몇 M일까?>
11/13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 아닌 '동의여부'로
11/15 [워크숍]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 사건 다시 쓰기 <벌써 1년, 그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
11/23 [화원놀이터] 아프리카 만댄스 원데이클래스 <춤으로 자유를 만끽하라>
11/26 [토론회] 분노가 지나간 자리, 다시 무대에 서다 : 이윤택 성폭력사건 대응의 의의와 쟁점
11/29 <애도하고, 말하고, 노래하는 밤-그녀들의 싸움을 기억한다>

12월 12/3 2019년 평가회의
12/6 2019 한해보내기 <메리 페미 크리스마스>
12/6 차별잇수다 결과보고회 <말하는 우리, 커지는 용기>
12/7 캐서린 매키넨(Catharine MacKinnon) 초청강연 <법과 문화로 보는 미투 운동>
12/7-8 아시아여성학대회 [5th Congress of AAWS 2019] 참가
12/18 2020년 계획회의
12/19 작은말하기 2019 송년회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동향 분석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19년까지 29년 동안 총 85,225회의 상담을 해왔습니다. 2019년 전체상담은 1,419회(1,028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294회(912건)으로 전체상담건수 대비 성폭력 상담의 비율은 88.7%입니다. '횃수'는 같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상담을 포함한 것이고 '건수'는 초기 상담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세한 통계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www.sister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연도별 상담현황

〈표1. 최근 3년간 상담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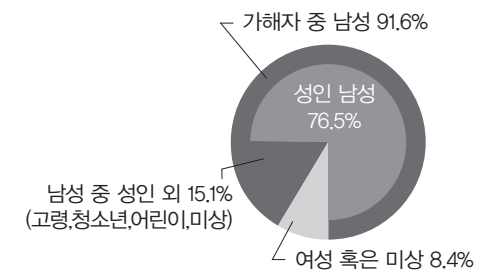
연도	상담회수	상담건수(A)	성폭력상담건수(B)	성폭력상담비율(B/A)
2017	2,118	1,414	1,260	89.1
2018	1,940	1,359	1,189	87.5
2019	1,419	1,028	912	88.7
총	5,477	3,801	3,361	88.4

②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폭력 상담 전체건수 912건 중 840건(92.1%)이 여성 피해자로 나타납니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줍니다. 전체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인여성 피해자로, 총 640건(70.2%)이었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62건(6.8%)으로 작년(77건, 6.5%)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③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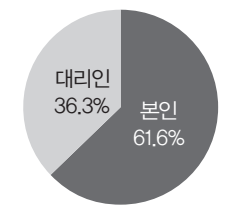
전체 가해자 성별 중 남성이 전체 912건 중 835건(91.6%)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중 성인남성 가해자가 698건(76.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림1. 가해자 성별, 연령별〉

④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912건 중 562건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했습니다. 대리인이 상담을 한 건수는 331건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했습니다. 대리인 상담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이웃 친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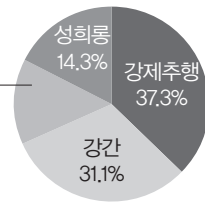
〈그림2. 상담 의뢰인별〉

2015년 전만 해도 본인이 직접 상담한 비율이 매해 50% 초중반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조금씩 커져 2018년에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하였고, 올해도 60%대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상담소를 찾아 성폭력을 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증가했음을 뜻합니다. 이는 성폭력 생존자가 스스로 성폭력을 고발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미투(#Me_Too)운동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⑤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폭력 상담의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 피해가 340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284건(31.1%), 성희롱 130건(14.3%)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다르지 않은 양상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의 연령이 고령(65세 이상), 성인(20세 이상), 어린이(13세-8세)일 경우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19세-14세), 유아(7세 이하)일 경우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가 강제추행보다 약간 더 많았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스토킹, 미상 등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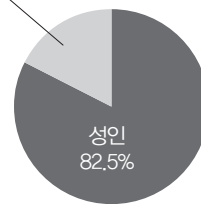


〈그림3. 피해유형별〉

⑥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성폭력 상담 건수 중 성인 가해자는 752명으로 82.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인 외 17.5% (고령, 청소년, 어린이,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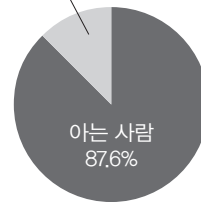


〈그림4. 가해 연령별〉

⑦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모르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매년 상담통계에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의 8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9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799건으로 8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미상 12.4%



〈그림5.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의 경우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273건(39.5%)으로 성인 피해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에 의한 피해가 두 번째로 많았던 작년과 달리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80건(11.6%)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청소년은 학교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24건(23.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족에 의한 피해가 15건(14.7%)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어린이와 유아의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가 각각 28건(45.2%), 16건(72.7%)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⑧ 피해자 지원내용

2019년, 상담을 의뢰해온 피해자를 상담소가 어떻게 지원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해자 지원내용>은 중복표기하며 심리·정서 지원이 518건(56.8%)으로 가장 많고 법적 지원이 466건(51.1%)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뒤이어 의료지원 61건(6.7%), 기타 45건(4.9%), 쉼터연계 3건(0.3%)으로 나타납니다.

법적 지원은 월요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 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견서와 상담기록 제출 등의 사건지원과 전화상 법률 및 법률서비스기관 안내 및 연계로 이루어집니다. 심리 및 정서 지원은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내부 면접상담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의료지원의 경우, 피해자에게 의료기관을 연계하거나 치료 및 상담에 동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쉼터연계는 쉼터 입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쉼터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부분이며 기타는 피해자를 거주지역의 상담소나 단체로 연계하거나 기타 치유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권한 경우입니다. 🏠

내가 나로 살아가는 동안에

캐시

저는 성폭력 생존자입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일들을 말하기에 더없이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며, 힘들어하기도 했고 울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성폭력 피해 경험은 잊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지나간 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그로 인한 후유증,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 등 많은 것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서 보기 위해 이 지면을 빌어 하고 싶은 말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10살에 처음으로 성폭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싫은 일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엄마의 대응은 저를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며, 가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던 엄마의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엄마는 제게 본인이 잘못했다고 물으시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다니면서는 학교폭력을 경험했고, 그 중에는 동성 간 성폭력도 있었습니다. 탈가정을 결심한 18살, 학교와 집 밖을 나서며 저는 도망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도 저는 다시 성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회사를 그만두고 도망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환경에 내몰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옯습니다. 살고 싶어서 어딘가로 도망쳐가기를 반복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 캐시

— 힘들고 외로울 때 마다, 학교 가는 길에 보았던 해안터 앞 등대

저를 가장 크게 괴롭혔던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후유증으로 생긴 자살사고를 동반한 양극성 장애였습니다. 생계도 물론 중요했지만, 사회 생활조차 할 수 없이 내리누르는 무력감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또 어딘가로 훌쩍 떠났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진 것을 모두 내버려두고 달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라는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고, 내 잘못이라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한 병은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났습니다.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 가슴에 통증까지 느끼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응급실에서 진정제를 처방받았고, 병원을 다시 찾아가 약을 받아왔습니다. 약을 먹으면 나아진다니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호전되는 자신을 보며, 조금씩 일상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는 약을 먹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엄마는 이번에도 약을 먹는 저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의사와 상의도 없이 약을 먹기를 중단해 본 적도 있지만,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약물 치료를 병행하자 몸도 마음도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저는 16년만에 모든 일이 나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알았고, 우울감도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것을 강요받으며 지내왔습니다.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생존자로 스스로를 다독인 후에도, 저는 다시 한 번 성폭력 경험을 해야 했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대답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고소를 결심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생계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로 이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안아주고 다독일 시간을 갖는 것.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다시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에게는 스스로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존중하며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잘 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 입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했던 공부, 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나를 만들어나가고 가꿔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괴로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릴 때가 많지만,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언제쯤이면 나아질까 괴로워하던 자신에서 내가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일상을 찾아나가기 위해서요. 16년만에 첫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많은 지지와 도움을 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에게 말로 다 하지 못할 감사를 전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에게 얻은 조언을 쓰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

반도 안 왔다는 말은 이제 그만!

하루

안녕하세요. 저는 열림터의 생활인 하루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이곳에 글을 한번 써 볼까 합니다. 저는 저의 친오빠로부터 6살을 시작으로 7년간의 강간, 14년의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은 그 가해자에게 있어 한 날 장난감에 불과하였고 가족에게서의 존재감 또한 비슷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말 잘 듣는 어린 여자아이.

그에게 있던 수백 개의 피해 중 하나를 여기 써 볼까 합니다. 그때는 아주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새벽에 반팔로 베란다로 나갔음에도 춥지 않았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수많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태어난 것을 살아 있는 것을 후회하였고, 저는 아직도 베란다에 가면 다리를 떨고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저의 수많은 트라우마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강간을 당하고 20년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지 모르고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다고 느끼며….

그러다 화가 나서 복수하려고 집을 나왔냐고요? 안타깝게도 아니요. 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보다 적게 맞았고 제가 생각해도 슬프지만 안 아프게 맞는 데 익숙해져 아픈 부분을 피해서 맞았거든요. 근데요, 몸은 많이 안 아픈데 심장이 너무 아파 터질 것 같고 눈물이 미친 듯이 나오더군요. 이러다 죽을 때까지 맞고 살겠다고 느꼈던 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결정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너의 선택이다”, “견뎌야 한다”, “반도 오지 않았다”.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저의 선택인가요… 저는 살려고 죽고 싶

지 않아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저의 선택인가요... 그 집에 태어난 것이 저의 선택이었나요.....

저는 그렇게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보 같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고소장을 쓸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비는 모습에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가 처벌만큼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용서를 빌 수 있는, 14년간의 긴 세월의 마지막 기회. 그렇게 가족들에게 고소장을 썼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처벌 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용서를 구한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할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이 무색하게도 그는 제게 “내 인생을 망친 미친년”이라는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저는 그대로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번의 경찰 조사, 2번의 군경찰 조사, 1번의 군검찰 조사, 법원에서 증인 출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긴 시간이 걸렸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말해야 하는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증인 출석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도 긴장이 되었고 그 전의 진술에서 대성통곡을 하였기에 안 울 줄 알았는데 제일 많이 울었고 상대측 변호사의 말이 귀가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증인이 잘못 기억하는 것이 아니냐”, “증인의 진술이다. 기억 안 나냐.” 등의 따지는 말투가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재판을 하면서의 느낀 점은 너무도 힘들면서도 후련하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어디에 가도 이렇게 나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주는 곳이 있는가, 이렇게 나의 억울함을 말할 곳이 있을까 하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증인을 다시 서라고 하면 또 할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증인 출석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재판도 판결은 났고, 한때 가족이었던 그는 13년 형량의 범죄

자가 되었습니다. 선고 결과만 들었을 때 저는 무죄가 안 나온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판결문을 읽고 저와 제 동생의 사건이 병합되어 나온 형량이 13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너무도 적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여동생 둘을 이렇게 오랜 기간 강간하였는데 고작 13년이라니.....

이제는 형량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유죄가 나오고 그 형량에 만족하는 피해자는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현재 가해자는 항소를 하여 2심을 앞둔 상태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많이 비웠습니다. 더 이상 무죄가 나올 것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그가 가족이라는 미련마저 없어져 그저 그는 내 인생의 쓰레기이자 그냥 사회적 성범죄자로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2심에서는 전자발찌형을 추가로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혹여나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는 것과 더불어 사람은 절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집을 나와 가정 내 성범죄자를 처벌함에 있어 2심 재판 앞두기 전까지의 소감이었습니다. 처음 집을 나왔을 때는 앞이 캄캄하였고 무서웠지만 열림터 선생님들과 변호사님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 남은 길도 잘해 나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앞으로 피부미용 자격증을 따고 피부미용사로 취업을 할 것입니다. 집도 보증금 잘 모으고 있답니다. 저의 동생 땡칠이(사진 속 강아지)도 데려오고, 향후 대학은 꼭!!!! 갈 생각입니다. 지금이 20살이니 23살쯤예요. 지금까지 열림터의 하루였습니다~~~



— 앞으로 열림터를 떠나 자립하게 된다면 데려올 저의 남동생이랍니다.

이 세상의 별빛이 될 모두에게

별

오늘은 상담을 시작하고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큰 발전이 있었던 날이다. 이야기하다가 눈물이 났기 때문이다. 항상 눈물이 없는 나, 너무 씩씩한 나, “나는 괜찮은데”가 입에 붙었던 나였는데, 드디어 선생님과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나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선생님, 제 친구들은 모두 직장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너무나 다들 바쁘게 멋지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왜 직장도 못 다니고, 약 먹지 않으면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고... 시간은 흐르는데 아무것도 성취를 이룬 것이 없네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성폭력이란 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벌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왜 하필 나야 했을까. 왜 나에게 일어났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나도 지금쯤 멋진 직장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한잔 하고, 기분 좋게 내가 술값을 내기도 하고, 연휴에는 동남아 여행도 가고, 퇴근 후에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출처 : Wikimedia Commons

“왜 내 잘못도 아닌 성폭력을 당해서, 난 지금 이렇게 젊은 나이에 시간을 허비하고 보내고 있을까요? 선생님은 항상 저 스스로에게 쉬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줘야 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게 잘 안되네요. 길으로는 ‘쉬고’ 있는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든 알차게 보내려고 저는 그동안 많은 시도를 해왔어요.”

“선생님, 저는요. 청년연설대전에 2번이나 나가서 저의 성폭력 피해경험을 밝히고 대중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요. 이대로 계속되는 경력 단절이 두려워서 청년 창업 경진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았고요. 토론회에 나가서 상도 받았어요. 최근에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고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유튜브는 실적이 저조하고 너무 큰 에너지가

들어가다 보니 좀 벅차서, 이제 글을 써서 책을 내야겠다고 생각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찌 보면, 참 열심히 살고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성폭력 피해 이후의 망가진 저의 삶 속에서 그 허무하게 흘러가는 피해의 시간들을 어떻게든 생산적으로 사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는 제 자신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요. 내 성폭력 피해를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라도 해서 뭔가 사회 운동을 하려는 내 자신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사실은 내 피해 속에서 허덕이면서 나 스스로도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든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나를 너무 채찍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께 일방적으로 내가 할말을 죽 늘어놓으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펴펴 흘렸다.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웃으면서 축하를 건네주셨다. “별이씨랑 7개월을 상담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 처음 봐요. 별이씨는 항상 감정도 없고, 맨날 괜찮다는 말만 입버릇처럼 하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내가 불쌍하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치료사로서 오늘 별이씨가 한 걸음 발전한 것에 대해서 축하해야 할 것 같아요.”

성폭력 피해 이후 나의 일상은, 나의 시간은, 마치 손에 잡은 한 줌의 모래 같다. 너무 힘없이, 손가락 사이를 승승 빠져나가 버린다. 아무리 다시 움켜잡으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를 맥없이 흘러 나간다. 임신 출산 육아도 아니고, 군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핑계거리도 없이 남들에게 대놓고 말 할 수도 없는 성폭력 피해라는 이유로, 줄지에 경력단절, 백수가 된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까?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이겨낼 것이다. 아무리 가해자와 이 세상이 나에게 가혹해도 난 이 깊고 깊은 심연의 바닥을 찍고 올라올 것이다. 너무

힘들 땐 아이처럼 눈물도 펴펴 흘리고,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 땐 소주도 한잔 하면서 누가 뭐래도 난 꺾이지 버틸 것이다.

선생님께서 또 그러셨다. “별이씨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서 헛된 거,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고생 많았어요.”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들지라도, 그래, 버릴 거 하나 없다. 시간을 되돌린 대도 여전히 최선을 다해 난 맞서 싸울 것이다. 그 덕분에 난 강해졌으니까.

어느 날 신이 내려와서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을 때로 되돌려준다고 해도, 나는 되돌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희망이 될 것이다. 내 이름처럼,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작은 별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별 빛이 될 나에게 백수생활 쯤이야. (라고 혼자 되뇌이며 힘을 내본다). ☯

나는 오늘도 출근을 한다

정소담_해군 장교

편집자 주
<월간에세이 392호
(2019.12)>에
게재되었던 글입니다.

나는 오늘도 출근을 한다.

이 당연함이 어렵기만 하던 시절이 있었다. '5분만 더 자야지.' 하는 나태함은 아니었다. 침대에 웅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알 수 없는 무력감이 있었다. 현관에 우두커니 섰다가 주저앉거나 털어지지 못한 두려움을 안고 집을 나서야 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액정 화면만 보다 걸으며 시간이 빨리 흐르기를 기도해야 했다. 불현듯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숨이 답답해지는 상황을 겪기도 했다. 원인도 알지 못했고, 하루 중 언제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도 몰랐다. 나는 그저 살아낼 뿐이었다.

내가 겪고 있던 많은 것들을 나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진단서에서 PTSD라는 단어를 보긴 했지만 사실 그런 건 전쟁이나 재난과 같이 엄청나게 큰 경험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지난 1월, 연계를 받아 상담소에 가게 될 때만 해도 나는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어서 좀 더 우울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미천한 학부 경험이 사회문제의 이면을 파고드는 비판의식을 길러주었던 것처럼, 지난 9개월간의 상담치료는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회피하고 있던 나의 'naive'한 모습, 수많은 취약성을 스스로 직시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어느 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린 그 사건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혼자서 꾸역꾸역 일상을 살아내는 동안 꺾어버린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나의 언어가 되어주었다.

하루 세 끼를 챙겨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가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좋으니 일단 출근하기. 1,000여 명 가까이 되던 연락처는 50개 이하로 줄었고, 파괴적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관계를 정리했다. 매일 쓰는 일지의 감정 상태가 '+'가 아니어도 이제는 그 상태를 지속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해낼 수 있게 되었다. 풍량이 이는 바다를 향해하는 법을 배웠듯 매일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독이며,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서 평화와 고요함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아직 100%의 컨디션은 아니지만, 이제 정말 매일

출근을 하고 있다. ‘내일 뵙겠습니다.’라는 말을 동료들이 신뢰할 수 있고, 다음 날 아침 ‘잘 쉬셨습니까?’라고 반갑게 서로를 맞이할 수 있는, 어쩌면 당연한 일상을 이제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정돈된 일상 속에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성을 회복했으니 이제 다음 단계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 사건들을 직면하고 담담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일이다. 겨우 떨치기 시작한 악몽과 불안, 수많은 감정변화를 다시 겪을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셨지만 어쩐지 나는 해낼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어 본다. 나는 혼자가 아니기에.

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내게 남은 에너지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 손을 잡고 이끌어준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며 지켜봐 준 사람들.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나면 ‘멘탈갑’이자 ‘데전드’가 될 것이라며 격려하며 기꺼이 나의 뿌리가 되어주고, 안전장치가 되어준 모든 이들에게 고맙다. 그 고마운 사람들이 여전히 내 곁에 있다.

선레이자 역사가 되는 일도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그저 지금으로서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조금의 희망이라도 되어줄 수 있다면 너무나 벅찬 영광이겠지만, 무엇보다 곧 결혼하는 남동생에게서 언젠가 태어날 조카에게 그저 ‘좋은 어른’이 되어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출근을 한다. 🍷



나눔터 86호 생존자의 목소리 투고 안내

생존자의 삶과 경험이 담긴 목소리를
생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형식: 에세이, 그림, 시 등 자유형식
분량: A4 3매 이내 (1회 게재) / 6매 이내 (2회 게재)
보내실 곳: ksvrc@sisters.or.kr
문의: 02-338-2890
기간: 2020년 5월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2020여성출마프로젝트

국회의 절반이
여성이라면

백희원_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얼마 전 뉴스에서 세 달 간 집안을 훑쳐보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 조치
가 취해지지 않았더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지만 흔히 일어나
는 일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관련법이 없는 것도 한 몫합니다. 한국에서 스
토킹 방지법은 한 번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발의
되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한 채 회기를 마무리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선이나 관심에서 시작된 위협을 받아본 적 없는 여성이 얼마나 될까요? 오래
된 지표지만 1998년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일반 여성의 30%가 스토킹 위협을 받아
봤다고 합니다. 지금도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이 얼마나 많은 사
람들에게 관계된, 치명적인 위험인지 생각해 보면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들여다보면 납득이 가기 시작합니다. 국회의 83%가
남성입니다. 여성은 1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 청년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 명
뿐입니다. 300명 중에 단 한 명이요.

녹색당은 주요 당직 및 선출직을 과반 이상 여성이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색
당이 여성 관련 이슈나 성소수자 이슈에 가장 활발히 목소리 내는 정당인 까닭에
는 이러한 당규가 분명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녹색당은 봄부터 2020 여성출마프로젝트(Werun2020.kr)를 시작했
습니다.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직접 출마하자고 제안
했습니다. 여성과 권력을 주제로 대중강연을 열어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고, 서
른 명의 여성들이 출마와 캠프 참여를 염두에 두고 집중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녹색당의 비례후보 당 내 경선에 네 사람이 처음으로 출마했습니다.
기본소득, 반성폭력, 젠더퀴어의 안전과 생존권, 주거권 등 국회에서 꼭 이야기되
어야만 할 의제들을 가진 이들입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지위를 갖춘 경우에도 남
성은 선출직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높은 반면 여성은 현저히 낮
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에 나가면 성별은 당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고 해요. 결국 애초에 여성이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정치인도 적고, 여성
을 위한 정책도 등한시 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정치에는 그 어느 때
보다 여성과 소수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사회가, 우
리 삶이 구체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녹색당의 도전이 한국 정치 전체에
자극이 되고 여성들의 삶이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데 왜 국회는 아닐까?
세상의 4분의 1이 청년이라는데 왜 국회는 아닌걸까?
300명 국회의원 중 여성청년의원은 왜 한 명 뿐일까?
당신이 없는 국회는 당신을 위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얼굴을 바꿉시다. 우리의 얼굴로 바꿉시다
2020 여성출마 프로젝트 녹색당이 시작합니다.



_ 2020 여성출마 프로젝트 릴레이 응원메시지. 가수 황소윤, 연재노동자 이슬아 외에도 시인 노혜경, 소설가 정세랑 등 많은 여성학자,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응원을 이어갔다. (사진 녹색당 제공)

꿈같은 6개월 육아휴직을 마치면서

감이_두 아이 엄마이자 페미니스트 활동가

9

2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의 육아휴직이 끝났다.

출근을 7시간 앞두고 잠이 오지 않는 9월 1일 새벽,

6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해두기 위해 남겨둔 기록을

상담소의 회원분들과 나누고자 한다.

나는 두 아이를 모두 출산한 이후에 입사를 했고, 이전의 직장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했기 때문에 한번도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할 앞두고 있던 작년 말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시댁이 어린이집과 가까워서 두 아이의 하원에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었는데, 입학을 하고 나면 어린이집과 학교 마치는 시간이 각기 다르고, 학교는 시댁에서 버스로 15분(총 이동시간 20분 소요)이 걸려 시부모님께 두 아이를 모두 부탁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아이가 만 8세가 되기 전에 신청하면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제도를 알게 되고 나서 바로 상담소 사무국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초등 1학년은 빠르면 12시 반, 늦어도 1시 반쯤 정규수업이 끝난다. 6시에 하원 하던 어린이집과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시간 차이가 발생했다. 학교 돌봄교실을 신청했지만 그마저도 4:40에 끝나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직접 학교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3년 동안 사교육을 지양하는 공동육아어린이집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학교 이후에 어떤 사교육을 선택할 것인지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고 정보도 부족했다. 취학통지서를 받고 예비소집 즈음해서 학원을 알아보고 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적절한 타이밍이 지나 있었다.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채로 입학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의 작은 언니는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으로 몇 개의 회사를 거쳐 IT기업에 입사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었다. 하지만 2년 터울의 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너무 고단하고 힘든 8년을 보냈다. 그러다가 언니의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1학기를 마쳤을 즈음인가에 언니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 작은 언니 말고도 내 주변에는 첫째 아이가 1학년일 때 퇴사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한 달에 4일 정도 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해야했지만, 이모님(양육지원자)이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키워주셨고, 언니도 IT계의 대기업 수준인 회사에서 꽤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퇴사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우리 식구들은 모두 언니의 퇴사를 말렸는데 특히 엄마는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시기에 직장맘이 겪는 고충을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니의 어려움에 누구보다 공감하시면서도 퇴사만은 하지 않기를 바라셨다. 하지만 언니는 아이들을 키우는 내내 너무 힘들었고, 퇴사 즈음해서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너털너털해져 있었다.

작은 언니의 경우를 비롯해서 주변에 너무 많은 이 시기 퇴사자들을 보면서, 경험적으로 아이의 취학이 여성노동자의 노동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대체적으로 야근이 잦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크게 요구되는 현재의 노동강도/상태와 취학아동에 대한 집중양육이 동시에 잘 기능할

수 있을지 많이 불안했고 두려웠다. 둘 다 제대로 못할 것이고 특히 학부모로서 빵점을 받을 것 같았다. 일에 집중하지 못할 거라 예상하지는 않았다. 다만 기억력이 좋지 않은 나라서, 소소하게 챙겨야 할 것이 많은 1학년 아이의 학교생활에 지속적으로 빈틈(준비물 빠뜨리기, 숙제 확인 안하기, 교육비용 관련 결제 빼먹기 등등)이 생겨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가장 염려되었다. 그리고 그런 빈틈으로 인해 아이가 방임되고 있다 여겨지지는 않을까도 걱정되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내가 빼먹는 수많은 것들을 자기 일처럼 챙겨주고 그 틈을 메꿔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제 학교에서는 더 이상 그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때문에 절망스러웠다. 아이의 아빠나 양육을 도와주시는 시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지만 주양육자로서 내가 챙기고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너무 컸다.

이런 이유로 육아휴직을 결정했다. 오롯이 8세 취학아동의 엄마로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5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상담소 활동가로서의 활동 기간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했다. 그동안 나는 근무시간 외에도 우리의 이슈와 활동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것들에 더 집중해서 글을 쓰거나 좋은 아이디어를 완성시키는 비혼/무자녀(?) 활동가들에 비해 늘 뒤처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잠든 아이들 옆을 떠나지도 못한 채로 스마트폰 밝기를 제일 어둡게 하고서 전날의 기사들을 챙겨 읽으며 퇴근 이후에 생길 수밖에 없는 육아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었다. 솔직히 쉬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 활동경력이 쌓이고, 조직 내에서 책임이 커지고, 동료들에 대한 애정이 더해질수록 마음의 여유가 없이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신경 쓸 것들이 더 많아졌다. 그런데 내 능력이 발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지워지질 않았다. 주변의 기대는 커지는데 나는 제자리걸음인 것 같은. 잠시 좀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였다.



_ 둘째와 함께 만든 우체통 뚜껑 "보고 싶은 사람들에겐"

그렇게 육아휴직을 시작했다. 입학식에 가고,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고 학교가 주최하는 각종 부모교육이나 회의 등에 참석했다. 돌봄교실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데리러 가고, 알림장을 챙기고, 진득하게 앉아서 숙제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밥을 챙겨주고, 갖가지 집안일을 했다. 휴직 기간 내내 가장 좋았던 것은 아이들과 진득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나가기 바쁘고, 저녁에 시간 맞춰 하원해서 밥 먹이고 씻고 잠자기 바빴던 지난 날들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유가 생겼다. 기존 등원보다 1시간 반이 빨라진 등교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침 시간이 여유로웠다. 아이들을 웃으면서 깨울 수 있었고, 소리한 번 지르지 않고 집을 나서는 날이 많았다. 아이들이 없는 낮시간에 그간

소원했던 엄마와 함께 영화도 보고 점심도 먹으며 얘기도 많이 나누었다. 어린이 집 운영위원장 역할을 맡게 되어서 어린이집 사람들도 만나고, 관련된 업무도 처리하면서 일과 시간을 보냈다. 집에 돌아온 아이의 다음 일정 전까지 간식을 챙겨 주고, 눈을 맞추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었다. 아빠의 칠순을 맞이해서 미국에 3주 동안 여행도 다녀왔다. 아이의 여름방학에는 단둘이 데이트도 많이 했다.

아이들과 24시간을 붙어있어야 하는 날들이 쌓여갔다. 예전 같으면 하루이틀만 같이 있어도 너무 힘들어서 지쳐버렸을텐데,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긴 덕분인지, 아이들이 많이 커서 그런지 힘들기보다는 재미가 더 커진 느낌이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 잘 들렸고,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아이가 좋아하는 청하의 <별써 12시>라는 노래는 어떤 언니가 알려준 건지, 빵집에 가면 둘째 아이가 가장 먼저 찾는 빵이 뭔지, 학교에서는 왜 남자아이들과 친해지기 어려운

지, 음악 줄넘기 수업을 왜 듣고 싶은지, 둘째는 밥 먹다가 왜 갑자기 배가 아픈지, 왜 잘 놀다가 갑자기 빠지고 우는지... 전에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했던 것들의 이유를 알게 되자 재미있어서 자꾸 웃음이 났다. 아이들의 마음과 행동도 “아는 만큼 보인다”

지난 6개월 동안 휴직을 하면서 7년 만에 처음으로 육아에 전념해보니 참 좋았다. 일하면서 놓칠 뻔했던 아이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선물 받은 느낌이다. 이제 상담소로 돌아가면 또 금세 잊어버리고 활동가 감이와 엄마 노선이 사이에서 종종 거리며 바쁘게 뛰어다니겠지? 그래도 전보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 같다. 아이들에게 미안해하기보다는 고마움과 사랑을 더 표현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보석 같은 시간을 선물해준 상담소와 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애쓴 동료 활동가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



_ 봄날 놀이터에 흐드러진 벚꽃들이 작은 두 손 가득히

합정동 '맛집', KSVRC 런치타임을 소개합니다

파이 n_ '여성해방을 향한 끝없는 투쟁' 연구소



_ 맛있는 점심을 먹기 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KSVRC 활동가들

KSVRC! 합정동 '맛집'으로 거듭나다

KSVRC 활동가 16명 중에 15명이 점심을 함께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2~3인에 1조로 일주일씩 '런치타임'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15명의 일주일 식단비는 놀랍게도 8만원입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8만원으로 만들어지는 기적과 같은 식단을 매번 체험하고 있는데요, 매주 활동가들의 고민과 정성이 가득 담긴 런치타임은 이미 '합정동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KSVRC 런치타임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이전에 활동가들의 점심 준비는 자발적 참여로 수년간 진행이 됐었는데요, 처음에는 집에 있는 반찬들을 싸와서 밥만 해서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쌀과 김치는 상담소의 지원을 받아오고 있고요, 특히 'KSVRC 사랑과 희생의 아이콘'인 상담팀 은희조가 많은 반찬을 기증해주셨고, 저도 반찬 기증과 밥하기를 담당하기도 했었어요. 또 성격 급하고 손 빠른 열림터의 사자가 후다닥 오징어묵국이며, 굴국이며 따뜻한 국물 요리를 해주시기도 했고, 한 번씩 선민, 목련, 지리산이 샤브샤브나 베트남 요리, 김치찌개 같은 특식을 만들어주시기도 했지요, 어떤 해에는 함께

밥을 먹을 사람들은 도시락처럼 조금씩 반찬을 싸오거나, 계란, 두부, 라면 같은 식료품을 사오는 방식으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생활 규모나 요리에 대한 관심도 등에 따른 개인 차이가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신청자에 한해서 회비를 내고,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을 배치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1인당 3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절할지, 너무 바쁜 활동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지 걱정도 되었지만, '요리 괜찮?'/'요리 안 괜찮?'으로 팀을 적절히 배치하여 초보자들의 부담을 줄였고, 현재까지도 식비를 인상하지 않고, 풍성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계부터 당번자 관리까지 해주고 계신 백목련 활동가의 몫이 큼니다.

옥상텃밭은 우리의 영양분

대부분 활동가들에게 KSVRC 런치타임은 하루에 한 번 건강한 '집밥'을 먹는 시간으로 유일한 영양섭취의 시간이자 각자의 일에 지친 활동가들이 서로 얼굴보며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이런 런치타임의 또 하나의 백미는 바로바로 옥상텃밭입니다! 2016년부터 마포구청의 지원을 받아 상자 텃밭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옥상을 가득 메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상추, 배추, 무, 오이, 고추, 가지, 방울토마토, 파 등등 초록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활동가들은 한 번씩 원예 테라피를 하기도 하고 제철 채소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식대를 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도시농부를 자처하는 은희조의 노고가 크시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된다!

1인당 3만원의 회비와 한 주 예산 8만원으로 14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할지 많은 분들의 의문이 있으실 것으로 아는데요, 정말 가능합니다! 제가 식사 당번이던 어떤 날, 저는 두부 한 모(1000원)와 감자 두 알(880원)을 구입해 된장



_ 풍성한 점심상의 주역, 옥상텃밭

찌개를 끓이고, 옥상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기존에 후원받은 참치캔으로 신선한 상추참치비빔밥을 준비하였는데요, 1,880원으로 일궈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두고두고 회자 되고 있습니다. 향후 당분간 이러한 기적은 계속될 것으로 같습니다. 활동가들의 애정 가득하고 건강한 식사준비는 빠듯한 활동가 월급과 인스턴트 가득한 식당숲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KSVRC 런치타임이 운영되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담소와 열림터, 울림에 보내주신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신 신규회원님들, 환영합니다.

강소영, 강소희, 강윤정, 강은재, 강창일, 걸스로봇, 고병진, 고지연, 고지현, 공경희, 광영화, 구지후, 권나현, 권도윤, 권수현, 김가림, 김나우, 김도열, 김명선, 김미래, 김민은, 김민주, 김보람, 김보민, 김복희, 김선희, 김세명, 김연재, 김영호, 김예리, 김지숙, 김지완, 김지율, 김지연, 김현직, 김혜리, 김효은, 김효은, 김효정, 김희라, 김희란, 남시우, 남지은, 남지영, 남현지, 노영미, 노영은, 마준희, 문은혜, 문준일, 박민우, 박상우, 박서진, 박선영, 박성한, 박영익, 박지연, 박지은, 박초롱, 박혜남, 박혜민, 박희주, 반주영, 변주희, 변지은, 서정민갑, 선우준, 설유진, 성정이, 소연정, 손미정, 손소희, 송진아, 신민철, 신현정, 신혜숙, 안윤아, 안정규, 양도훈, 여은진, 엄정신, 오세준, 우혜림, 원지혜, 유경미, 유승규, 유승민, 유연정, 유용석, 윤김진서, 윤다희, 윤채영, 윤형진, 이나일, 이서영, 이세나, 이세민, 이수진, 이영지, 이옥민, 이원영, 이주영, 이주희, 이지예, 이현미, 이호선, 이희숙, 임오주, 임하나, 장경춘, 장연경, 장혜린, 장혜윤, 전순연, 전지혜, 정영서, 정유정, 정은희, 제하나, 조성, 조수연, 조연주, 조영선, 조유진, 조지원, 주매평소, 채은혜, 최금예, 최문영, 최민옥, 최보영, 최선형, 최성실, 최수연, 최용환, 최은영, 최재훈, 최지은, 최혜영, 추연정, 하선자, 하연주, 하지는, 하태준, 한지숙, 한혜영, 함정민, 허민숙, 허성희, 허채영, 황송원, 김경희, 김효은, 박대진, 오진아, 이진선, 최형미, 황선미 (이상 158명)

▶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님들, 애정합니다.

aaami, Dalia Kirzner, 강가람, 강가에, 강공내, 강길모, 강남식, 강동희, 강동록, 강민녀, 강버들, 강보길, 강양희, 강영, 강영순, 강영화, 강인화, 강경희, 강희진, 계경문, 고금이, 고보경, 고아모, 고은별, 고재경, 고정남, 고지은, 광경화, 광옥미, 광옥이, 광현직, 구민희, 구현직, 권경아, 권구홍, 권선경, 권소영, 권인선, 권인숙, 권경, 권주영, 권주희, 권지연, 권혜진, 권효중, 금철영, 기독교위드유센터, 길은정, 김가영, 김경선, 김경아, 김경주, 김광만, 김광진, 김규원, 김기혜, 김길우, 김나연, 김나영, 김나정, 김나형, 김다미, 김다은, 김다희, 김도란, 김동명, 김동원, 김동희, 김두나, 김돌순, 김로사, 김명민, 김문영, 김미경, 김미라, 김미랑, 김미선, 김미선, 김미순, 김미영, 김마옥, 김미주, 김민규, 김민아, 김민아, 김민우,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태, 김민화, 김보명, 김보연, 김복연, 김삼미, 김상정, 김새롬, 김새별, 김서하, 김석재, 김선경, 김선미, 김선에, 김선영, 김선화, 김선화, 김성동, 김성문, 김성옥, 김성자, 김소라, 김송이, 김수, 김수경, 김수민, 김수진, 김순원, 김순자, 김슬아, 김승재, 김시연, 김안나, 김애라, 김애란, 김양자, 김엘립, 김여진(여파), 김연경, 김연경, 김연우, 김연재, 김연희, 김영미, 김영선, 김영숙, 김영환, 김예람, 김옥주, 김용란, 김용선, 김용식, 김우연, 김원경, 김원식, 김유림, 김윤경, 김윤영, 김윤희, 김은경, 김은아, 김은진, 김은하, 김은희, 김이슬, 김인숙, 김일림, 김재원, 김재원, 김장아, 김정원, 김정은, 김정혜, 김종수(관상부)/리치몬드, 김종웅, 김종희, 김주연, 김주희, 김주희, 김준호,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원, 김지은, 김지찬, 김지현, 김지혜, 김지훈(김혜리), 김채연, 김준화, 김탁환, 김태현, 김하나, 김하나, 김한선혜, 김해경, 김현란, 김현수, 김현정, 김현정, 김현진, 김형수, 김혜경, 김혜영, 김혜원, 김혜윤, 김혜정, 김혜진, 김홍미리, 김화숙, 김효선, 김효주, 김효진, 김효진, 김희경, 나미나, 나선영, 나은찬, 나인선, 남순아, 남승현, 남윤아, 남인순, 남정현, 남현미, 남현우, 남혜정, 남효정, 노경란, 노규미, 노유성,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지성, 노희섭, 노희지, 더트그림(주), 도병욱, 도상금, 류란, 류호윤, 마정윤, 목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미라, 문수연, 문윤경, 문재연, 문준희, 문지영, 문지원, 문효진, 문희영, 민난주, 박경훈, 박기민, 박기순, 박다위, 박명선, 박미라, 박미란, 박미숙, 박미정, 박민자, 박민주, 박민지, 박보은, 박부진, 박상영, 박상희, 박선희, 박설희, 박성주, 박성한, 박성훈, 박세민, 박소라, 박소림, 박소희, 박수경, 박수미, 박수연, 박수지, 박수진, 박숙미, 박아름, 박아름, 박아린(Park Aileen), 박영수, 박영주, 박유림, 박유미, 박윤성, 박윤숙, 박윤숙, 박은미, 박은자, 박은진, 박은혜(이준기), 박재민, 박정순, 박정오,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종훈, 박종욱, 박준숙, 박준숙, 박지나, 박지영, 박지원, 박지연, 박진표, 박창경, 박천우, 박현달, 박현배,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희정, 방기연, 방은제, 배경, 배셋별, 배성진, 배순희, 배우미, 배은경, 배자하, 배재은, 백경원, 백경준, 백미순, 백서영, 백성길, 백세희, 백윤서, 백인애, 백지선, 백지연, 백현, 법무사

김장훈사무소, 변순임, 서권일, 서명호, 서미현, 서민자, 서순진, 서연희, 서용완, 서윤정, 서인석, 서정애, 서정표, 서지은, 서태자, 서혜진, 서혜진, 서희순, 선재희, 선희갑, 성기원, 성예랑, 소희성, 손경이, 손다혜, 손명규, 손미선, 손미연, 손연성, 손우성, 손준성, 송민영, 송석진, 송승훈, 송유진, 송정연, 신고은, 신동현, 신명숙, 신미라, 신상일, 신상호, 신성용, 신윤진, 신은재, 신정혜, 신종훈, 신지혜, 신한나, 신현, 심승주, 심조원, 심혜련, 안민, 안보라, 안윤정, 안재훈, 안지희, 안철민, 안춘기, 안태희, 안형윤, 양민희, 양성옥, 양성은, 양수안나, 양은주, 양자영, 양창수, 양현규, 양효준, 여진희, 엄현경, 여주하, 여지윤, 여진아, 오경은, 오경은, 오선곤, 오성화, 오세희, 오수진, 오승미, 오승민, 오승이, 오유미, 오재형, 오정진, 오주연, 오현정, 오현주, 우성희, 우안녕, 우완, 원경주, 원민경, 원민혜, 원성혜, 원순경, 유경빈, 유경희, 유다솜, 유성혜, 유세정, 유숙조, 유승진, 유인규, 유지아, 유지혜, 유진, 유현미, 윤나래, 윤다정, 윤소진, 윤수련, 윤수진, 윤숙경, 윤양지, 윤영란, 윤영숙, 윤영숙, 윤영호, 윤용호, 윤자영, 윤정희, 윤지원, 윤희영, 윤선화, 이강화, 이건국, 이진정, 이경미, 이경숙, 이경호, 이계형, 이규호, 이규호, 이규화, 이나연, 이나영, 이난주, 이남주, 이다정, 이도규, 이동현, 이명숙, 이명선, 이부덕, 이산, 이상미, 이상미, 이상용, 이상재, 이상록, 이서영, 이서희, 이서연, 이선현, 이세영, 이소림, 이소영, 이소은, 이소희, 이수영, 이수진, 이수진, 이순화, 이슬, 이슬비, 이승숙, 이승진, 이여경, 이연정, 이연표, 이영근, 이영미, 이영미, 이영주, 이영택, 이원택, 이용택, 이원영, 이원형, 이원홍, 이우미, 이윤경, 이윤상, 이윤선, 이윤희, 이은, 이은애, 이은영, 이인숙, 이장우, 이재순, 이재원, 이정민,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은, 이정은, 이종연, 이종희, 이종희, 이준도, 이준범, 이준형, 이지선, 이지영, 이지영, 이지은, 이지은, 이지혜, 이진아, 이태숙, 이혜사랑, 이혜원, 이향심, 이현숙, 이현주, 이현주, 이혜경, 이혜경, 이혜정, 이호선, 이호선, 이호진, 이홍은, 이효린, 이희동, 이희수, 이희하, 임건호, 임경일, 임경진, 임금희, 임순영, 임우영, 임주희, 임지숙, 임지영, 임진용, 임형숙, 임효진, 임홍섭, 임화윤, 장광미, 장규형, 장다혜, 장미정, 장성희, 장수경, 장수진, 장영아, 장예리, 장예지, 장윤경, 장윤성, 장윤정, 장은주, 장정희, 장진희, 장철우, 장혜란, 장효정, 전누리, 전미리, 전민주, 전병미,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유경, 전유나, 전은유, 전정옥, 전정현, 전지진, 전화정, 정경숙, 정경애, 정경자, 정경직, 정광, 정기영, 정대근, 정택기, 정동연, 정두리, 정두영, 정문영, 정민성, 정민수, 정민이, 정보배, 정복련, 정슬아, 정지연, 정영미, 정영석, 정영선, 정영애, 정예지, 정옥실, 정유림, 정유석, 정윤경, 정은진, 정인호, 정정기, 정준애, 정지은, 정지원, 정지현, 정지혜, 정지훈, 정진옥, 정진화, 정현, 정혜윤, 정혜준, 제갈향선, 조경오, 조계삼, 조규선, 조나단, 가이 파울러, 조무호, 조서연, 조선주, 조소연, 조순영, 조영선, 조영선, 조윤정, 조은샘, 조은숙, 조은을, 조은정, 조인석, 조인섭, 조인옥, 조일래, 조재연, 조지혜, 조진희, 조향현, 조현규, 조혜인, 조훈재, 주광용, 주명희, 주희진, 지승경, 지인숙, 지인숙, 지현, 진새록, 차성안, 차인숙, 차현수, 차현영, 채송희, 채우리, 채현숙, 천정아, 천정환, 최경식, 최대연, 최동석, 최미숙, 최보름, 최보미, 최보원, 최선아, 최성호, 최성화, 최수연, 최숙희, 최아름, 최연정, 최영애, 최영주, 최옥경, 최영원, 최용득, 최원일, 최윤수, 최윤정, 최윤정, 최은영, 최은영, 최은영, 최진안, 추민주, 추정희, 추지현, 탁수정, 하림, 하연주, 하연주, 하유림, 하은주, 하주선, 하주현, 한기모, 한문형, 한미화, 한보경, 한보라, 한수연, 한수진, 한승희, 한신복, 한여선, 한영미, 한유림, 한정림, 한재윤, 한희정, 함정민, 하라금, 허선형, 허은주, 하이화, 허준석, 허지민, 허지혜, 홍만희,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세기, 홍순기, 홍은정, 홍일선, 홍진숙, 홍찬숙, 황미선, 황선유, 황성기, 황성옥, 황성임, 황소영(이한), 황숙희, 황예나, 황정진, 황지성, 황지영 (이상 791명)

▶ 변치 않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평생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강대영, 강명덕, 강정자, 강지원, 강진자, 김경현, 김미주, 김민정, 김연정, 김지은, 김효선, 김희정(하이다), 공지팩토리, 나인선, 남우석, 노길용, 박미란, 박성환, 박인필, 박종훈, 박지희, 박진우, 배경, 배정철, 복인재, 송미현, 신상호, 안백린, 안현진, 안현진, 오주현, 원민지, 유경화, 이덕화, 이문희, 이상화, 이우영, 이우미, 이혜사랑, 이현상, 임나영, 임미화, 임소룡, 임효진, 정다희, 정대련, 정명중, 정명중, 정순희, 조인석, 조일래, 천수빈, 최수진, 최유진, 최진주, 하동호 (이상 56명)

▶ 생활인들에게 더 없이 큰 힘이 되어주시는 열림터 후원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강재득, 강지아, 고화정, 박선하, 금보경, 김경태, 김광현, 김도홍, 김도희, 김문주, 김미우, 김미진, 김미향, 김선환, 김성준,



김소연, 김수연, 김수잔, 김수정, 김신아, 김아리, 김연순, 김연정, 김영지, 김원오, 김유숙, 김유정, 김윤희, 김이슬, 김지국, 김차연, 김태연, 김하나, 김혜연, 김혜진, 김효진, 김희창, 나경미, 나유미, 남영미, 노하연, 노희지, 류수민, 류종현, 문숙영, 미씨유립, 민슬기, 박계나, 박미정, 박상희, 박선행, 박아름, 박우영, 박은경, 박인필, 박정숙, 박정옥, 박준숙, 박현희, 박혜선, 박효정, 배정원, 백미순, 백용민, 서범원, 서해인, 설유진, 성주희, 소롭티미스트 서초클럽, 송미현, 송민성, 신경혜, 신용범, 심장현, 심진섭, 심현실, 안분순, 안효선, 양윤희, 양주애, 엄다희, 오경은, 오두환, 오선호, 오영일, 오정배, 오정희, 오희중, 유미란, 유선옥, 유예리, 유진영, 유혜숙, 유형신, 이경선, 이경아, 이계형, 이다윤, 이도행, 이동엽, 이명희, 이미홍, 이병주, 이상연, 이상아, 이수정, 이슬아, 이산울, 이어진, 이영희, 이옥영, 이유진, 이윤석, 이은정, 이재현, 이정숙, 이정화, 이종국, 이주란, 이주섭, 이지영, 이지예, 이찬희, 이태복, 이향심, 이향화, 이형찬, 임명순, 임유영, 임지연, 임치선, 임치순, 장다혜, 장명환, 장희진, 전순유, 전승기, 전해영, 정민석, 정선희, 정순희, 정은경, 정정희, 정창수, 정태령, 정하나, 정현주, 조정진, 조민정, 조영래, 조윤기, 조은희, 조종신, 조현아, 주혜명, 주혜정, 진수희, 채송희, 최가람, 최강현, 최세은, 최윤미, 최정림, 최정임, 최정희, 최희진, 페미2리, 표아림,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 한국아마자키마작(주), 한영규, 한전부녀회, 한정은, 한진희, 허복옥, 허정연, 허제량, 홍난영, 홍윤기, 황동하, 황유나, 황은순 (이상 182명)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시후원자분들, 감사합니다.

Hersblood, 감사합니다. 강민지, 제모임 디모스, 구본택, 김가원, 김도훈, 김성은, 김아영, 김안정, 김연경, 김영락, 김윤희, 김지수, 데몬메르 공강되게 해주세요, 데몬메르데몬공강되게, 레이버이사일, 류운정, 리플라이즈, 문찬미, 박정혜, 벽을깨고마주BORA, 복인혜, 송호영, 오경준, 유성애, 윤나영, 윤선남, 윤송이, 윤지영, 이민형, 이서희, 이숙경, 이승민, 이승주, 이예은, 이정자, 이정현, 이준호, 이하준, 이향심, 임나영, 임지선, 장민경, 정다희, 정선희, 조성, 조성인, 조은희, 조일래, 존타클럽, 쪽빵카페, 최금례, 최재훈, 최지원, 페미2리 (이상 56명)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체회원 일괄등록 안내 }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도록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설 연구소 올림, 부설 쉼터 열림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전체회원을 일괄등록 합니다. 등록을 원치 않으시는 회원님께서도 상담소 또는 열림터로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미납된 후원회비 재출금 안내 }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계좌에서 후원회비가 출금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월출금일 5일(평일 기준) 이후 1회 재출금을 시행합니다. 재출금 시에는 해당 월의 미납된 금액만이 출금되며, 익월에 미납된 금액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 후원회비 납부관련 문의 혹은 회원정보(주소/연락처/이메일주소 등) 변경 방법 }

상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상담소 후원회원 회원정보 변경하기>를 참고하시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회원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 회원 문의: 닥벨 02-338-2890, ksvrc@sisters.or.kr
부설 쉼터 열림터 회원 문의: 낙타 02-338-3562, yeolim94@hanmail.net

훈훈한 기부

{ 상담소 }

남호정님의 식빵, 커피빵 등등 각종 빵빵빵
고지연님의 천안 명물 호두과자
조인섭님의 달콤쌔쌔한 와인 선물 20병
임경진님의 안희정 사건 승리 축하 기념 크고 달달한 사인머스켓
김미순님의 달콤한 복숭아 1박스
마이리님의 멀리서 건너온 멕시코 쿠키, 겹, 과자
지우님의 건강간식 호도과자 1상자
이유진님의 더위를 날려주는 팔방수 세 그릇
장경아님의 맛있는 아이스크림 스무개
마미님의 첫 월금으로 구입한 돌돌 롤케이크, 녹차맛, 딸기맛
이정숙님의 달달한 황도복숭아 2상자
이경환님의 건강에 좋은 하루견과 세트
정혜선님의 프로미엄 사과 1상자
에스더님의 찹쌀,차약,바누 등 생활필수품 세트
김금옥님의 상상하고 맛있는 포도 1상자
이동원님의 고소고소 참기름, 굴소스 등 각종 식재료
하루님의 맛있는 멜론
마츠모토 교수님, 요시다 변호사님의 정갈한 일본과자세트
익명의 후원자님의 포도 5상자

<일본 연구자그룹>의 음료수 1상자와 일본 과자
<동작구복지관> 변인희, 김솔지님의 따끈따끈한 만추 1상자
<정의당 여성위원회>의 영양가득 파칸파이

{ 열림터 }

임순택님 제철 맞은 새콤달콤 감귤 10kg 한 상자
김미우님의 생활인들의 크리스마스 깜짝선물이 된 가방 10개
마포구청에서 겨울 대비용 김장김치 10kg 한 통
100주년기념교회에서 감사절 기념 영양가득 떡 반 말
국제존타클럽 지스바우위원회에서 쫄면달콤 약밥 한 통

유 한국성폭력상담소